



광주 진흥고 출신 투수 임창용 메이저리그 도전

등번호 0 '미스터 제로'... "목표는 WS 우승"

(월드 시리즈)

시카고 컵스 입단 계약
 빠른 볼·사이드암 강점
 장재근·서재용
 "마무리로 충분히 통할 것"



한국을 대표하는 사이드암 임창용이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도전에 나선다.

'미스터 제로' 임창용의 도전, 이번에는 미국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가 18일 사이드암 투수 임창용과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18일 컵스가 임창용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10만 달러(약 1억7000만원)와 함께 마이너리그 연봉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임창용의 빅리그 도전이 마침내 종착지에 이르렀다. 임창용은 삼성시절이던 2002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빅리그의 문을 두드렸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임철금액에 꿈을 접었다. 이후 2007시즌이 끝난 뒤 임창용은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2005년 6.50의 방어율로 5승8패3홀드에 머문 임창용은 2006시즌에는 팔꿈치 수술여파로 한 경기에 나서는데 그쳤다. 2007시즌

에도 4.90의 방어율로 5승7패3홀드에 만족하면서 일본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임창용은 야쿠르트에서 5년간 2.09라는 방어율로 11승13패 128세이브를 기록하며 '수호신'으로 우뚝 섰다. 2009년에는 0점대 방어율 행진을 이어가며 '미스터 제로'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올 시즌 중반 팔꿈치 수술을 받은 임창용은 복귀 무대를 한국과 일본도 아닌 미국으로 삼았다.
 한·일 통산 296세이브를 올린 임창용은 "2014년 월드시리즈 우승 도전에 필요하다"고 손을 내민 시카고 컵스에서 300세이브 그리고 버리지 못했던 빅리그의 꿈을 위해 야구 인생 마지막 여정을 걷게 됐다.
 재할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임창용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

해대 시절 임창용의 볼을 직접 받았던 장재근 감독은 "임창용은 타고난 선수다. 진흥고를 막 졸업하고 와서도 빠르게 공을 던졌다. 빠른 볼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임창용의 확고 5년 선배이자 모교 진흥고의 최재영 감독도 "일본을 거쳐 미국까지 간 것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학교 입장에서 도 반가운 소식이다"며 "재할이 중요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1~2년 정도 빅리그에서 뛰면 좋겠다. 진흥고 후배들에게 큰 힘과 자긍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빅리그' 출신의 KIA 서재용도 "확실한 변화구"를 전제조건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서재용은 "일본에서 해외무대도 경험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다. 선발이 아니라 중간·마무리 쪽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에 일본과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며 "미국타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변화구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 빠른 볼을 가진 사이드암 투수가 귀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다"고 임창용의 성공을 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의 야구, 아직 끝나지 않았다"

KIA 투수 출신 조태수
 실업야구단서 새 출발



"아직 나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KIA 투수로 활약했던 조태수가 실업야구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스포츠 마케팅 업체인 'E&S company'와 함께 (주)보은제약이 창단하는 실업야구단에서 플레이 코치를 맡게 된 것이다.
 보은제약 야구단은 김정택 전 삼무감독을 사령관으로 해 오는 20일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다. 상무시절 인연으로 김 감독의 부름을 받은 조태수는 선수 겸 코치로 뛰게 된다.
 보은제약은 최근 트라이아웃을 거쳐 35명으로 선수단을 꾸렸으며 선수들은 일과 연습을 병행하며 프로야구 선수에 도전하게 된다.
 올 시즌이 끝나고 KIA에서 방출된 조태수는 다른 팀의 부름을 받지 못하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섰었다.
 조태수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힘을 얻었다. 야구를 더하고 싶다는 생각, 야구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었다. 나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슈퍼스타도 아니고 마운드에서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며 "실업팀 창단이 더 이뤄져야 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야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쁘다. 이곳을 발판 삼아 더 큰 무대로 진출해 실업야구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 시즌 KIA 투수로 활약했던 조태수.

야구·소프트볼 손 맞잡고
 올림픽 종목 재진입 추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출범
 올림픽 종목 재진입을 위해 손을 맞잡은 야구와 소프트볼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이라는 이름의 통합 기구를 출범시켰다.
 국제야구연맹(IBAF)과 국제소프트볼연맹(ISF)은 18일 통합 기구 구성을 승인하고 새 기구를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orld Baseball Softball Confederation)이라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은 리카르도 프라카리 IBAF 회장과 돈 포터 ISF 회장이 공동 회장을 맡아 이끈다.
 /연합뉴스

광주육상경기연맹
 박종석 회장 추대

박종석 대호산업 회장(61·사진)이 광주 육상 진흥에 힘을 더한다.
 광주 육상경기연맹은 최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박 회장을 제 12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광주육상경기연맹은 도약 종목의 감자 김덕현·배찬미, 단거리 강자 임희남, 해머던지기 박영식, 여자 마라톤 노현진 등을 앞세워 7~8개의 태극마크를 노리고 있다.
 한편 광주육상경기연맹은 2013 시즌 꿈나무

선수 육성과 2014 아시안게임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우즈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매길로이는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며 "그는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찬사를 보냈다.
 매길로이는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4승을 올리고, 21주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쳐 골프계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우즈는 매길로이를 칭찬하는 한편 경기심도 늦추지 않았다.
 우즈는 "매길로이가 나와 라이벌 구도를



박종석

우즈(미국)가 올 한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세계 랭킹 1위를 지킨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즈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매길로이는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며 "그는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찬사를 보냈다.
 매길로이는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4승을 올리고, 21주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쳐 골프계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우즈는 매길로이를 칭찬하는 한편 경기심도 늦추지 않았다.
 우즈는 "매길로이가 나와 라이벌 구도를



우즈 "올해는 매길로이가 최고"

"올해의 선수상 자격 충분... 나와 라이벌? 5년 더 지켜봐야"



우즈

타이거 우즈(미국)가 올 한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세계 랭킹 1위를 지킨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즈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매길로이는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며 "그는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찬사를 보냈다.
 매길로이는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4승을 올리고, 21주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쳐 골프계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우즈는 매길로이를 칭찬하는 한편 경기심도 늦추지 않았다.
 우즈는 "매길로이가 나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5~10년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가 제대로 맞붙은 것은 현대 클래식에서밖에 없으니, 앞으로 큰 대회에서 더 많은 대결을 펼쳐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즈는 올 한해를 돌아보며 "부상 속에서 대부분을 보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풀타임으로 출전할 수 있어 기뻐다"고 회상했다.
 부상과 스캔들을 몇 년간 시달리다 올해 재기에 성공, PGA 투어에서 세 번 우승한 우즈는 "올해 우승한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며 "첫 번째 우승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좋았고, 두세 번째 우승을 할 때는 최다승 부문 2위에 올라있는 잭 니클라우스의 기록(73승)을 넘어설 수 있어 좋았다"고 설명했다.
 또 "상금을 쌓는 것보다 우승하는 것만을 생각한다"며 "우승한다면 나머지 성과는 뒤따라 올 것이니 그저 오랫동안 이기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Special 신양고객감사 특별 상설 뷔페
 ShinYang Park Hotel
 062)221-4101~3 062)228-8000
 특별 상설 뷔페 요금
 성인 ₩30,000
 아동 ₩20,000 (부가세 별도)
 신양 스페셜 서비스
 점심 와인 한잔
 저녁 미니케익 제공
 일시 2012.12.24~12.25/12.31/새해 1.1 장소 호텔 1층, 스카이라운지